

배달노동자 노조 “번쩍배달 도입후 수입 30%나 감소”

배민, 한 번에 하나 상품 전하는 ‘번쩍배달’ 시행

라이더유니온 “번쩍배달로 임금 줄고 속도경쟁”

“임금 30% 줄고, 실제 이동시간 증가” 설문조사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이 배달민족(배민) ‘번쩍배달’ 정책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번쩍배달을 시행한 이후 더 오래 일해도 라이더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운영사다.

배민은 올해 1월부터 한 번에 하나의 상품을 배달하는 ‘번쩍배달’을 시행하고 있다고 라이더유니온은 전했다. 그러면서 “단건배차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은 없었다”고 전했다.

배달 경로에 따라 복수의 상품을 한 번에 배달하던 기사들이 한 번에 하나의 상품만을 배

송하게 되면서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라이더들은 이로 인해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고, 장시간 근무를 선택하면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다고 라이더유니온은 전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번쩍배달로 줄어든 임금이 과로와 속도경쟁으로 이어져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배민 라이더는 “정말 번쩍배달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에 요금을 책정해야 라이더들도 손해를 입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단건배차에서 2배차로 변경 ▲무분별한 신규인력모집 중단 ▲단건배차에 대한 수입 하락 보증을 위한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조합원 등 라이더 약 1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번쩍배달 도입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라이더 124명 중 103명(약 83%)이 번쩍 배달 이후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번쩍배달 2주 전과 2주 후 임금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감소 액수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응답 결과를 분석한 라이더유니온은 단건배차 이후 임금 약 30%가 줄었다고 추산했다.

실제 이동거리의 중위값은 번쩍배달 이전에는 90~100km 구간이었지만, 번쩍배달 이후 100~110km 구간으로 이동했다.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이들은 54명(44%)로 조사됐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36명으로 나타났다.

번쩍배달 시행 이후 일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25명에서 43으로 늘어났다. 5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4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수익감소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거나, 배달업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해석되는 지점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수익감소로 인한 의욕감소, 비용대비 효율성의 하락, 피로도 증가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이슬기자



11일 오전 2시25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내 주차장 입구 가로수가 넘어지고 교원 사택 계단 출입구 일부가 훼손됐다. 경비원은 사택 인근에서 발견한 SUV차량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및 주변에 세워진 파손 차량. (사진=독자 제공)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음주운전하다 대학 시설 부수

가로수·사택 주변 출입구 잇달아 들이받아

광주 지역 한 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자가용을 몰다가 교내 사택 주변 시설물을 잇달아 파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학 교정 내 시설물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소속 A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교수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GIST) 주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교내 가로수·교원 사택 출입구 시설물 등을 부순 혐의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인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까지 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새벽시간대 순찰을 돌던 경비원은 시설물이 부수진 사택 주변에 세워진 SUV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뒤늦게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SUV차량의 차주인 이 대학 A교수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점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6%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희기자

정부, ‘백신 접종후 휴가’ 검토... “이상반응엔 충분한 휴식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기자단 설

다면서 “이상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나 접종 후 안정화 부분 등을 같이 고려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접종 후 휴가 도입이 논의의 시작

중수본 “지자체 등이 건의...관계부처 협의해야”

방대본 “이상반응 관리 안내...논의는 시작단계”

명회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1~2일 공가(公暇) 제공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했

단계여서 구체화된 것이 없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이상반응으로서 고열이나 몸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해열제 등을 복용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휴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어 “(한국 정부나 질병청에서)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 신고된 사례는 하루 사이 1073건이 늘어 총 6859건이다. 이는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6859건 중 98.9%인 6782건은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사례였다.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는 15건 보고됐다. 중증 의심 사례는 5건(경련 등 신경계 2건·중환자실 입원 3건),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사례는 1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 사례는 56건이다. 아나필락시스양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급성 면역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르다.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